

내장초 지속가능발전 학교재정(SDSB) 모형 분석 보고서

- 2016~2017 결산 및 2018 본예산을 중심으로 -



내장초등학교 행정실

차 례

I. 배경	1
II. 목적	1
III. 기능	2
IV. 분석 도구	2
V. 분석 결과	2
1. 총괄(합계)	2
가. 해설	2
나. 시사점	3
2. 정책사업별	3
가. 해설	4
나. 시사점	4
3. 기본 인프라	5
가. 해설	5
나. 시사점	5
VI. 종합 및 대책	6
1. 총평	6
2. 추경예산 편성	6

내장초 지속가능발전학교재정(SDSB) 모형 분석 보고서

내장초등학교
행정실

I. 배경

학교를 유지·경영하기 위해 학교재정이 필요하다. 학교재정의 근간은 학교 예산이며, 예산은 교육과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산을 예산답게 짜는 것은 학교 경영의 정상화와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선결 조건 중 하나다.

교육목표 달성과 경영철학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는 충실한 결산 분석이다. 결산 결과를 분석하고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예산 과정에 피드백함으로써 학교 예산을 보다 정교하게 구성할 수 있고, 학교재정이 튼실해짐은 물론 교육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하게 된다.

에듀파인(교육행·재정시스템)을 통해 학교재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원하는 기초 자료도 얼마든지 쉽게 얻을 수 있다. 다만 누적된 자료를 현재의 문제 해결에 즉시 투여하거나 미래 의사결정의 합리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은 아직까지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Education 4.0 시대를 대비하여 단위 학교마다 학교재정 관련 Big Data를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학교재정 분석 모형을 통해 학교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을 예측하고 보다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II. 목적

지속가능발전 학교재정 분석을 통해 2회계연도(2016·2017) 결산 추세를 확인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년도 지속가능예산안을 도출하여 실 예산(2018 본 예산)과 대조함으로써 내장초등학교의 지속가능발전 학교재정 분석 모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I. 기능

지속가능발전 학교재정 분석은 본교의 기본운영 인프라의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 규모를 추정하고, 교육 과정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향후 중·장기적인 학교 예산 편성 방향을 설정하는데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

IV. 분석 도구

- 결산액: 회계연도 종료된 후 세출결산액 (2 회계연도: 2016, 2017)
- 추세율: $2 \text{ 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의 증감률} \{ (\text{전년도} - \text{전전년도}) \div \text{전전년도} \times 100 \div \text{대상연도수}(2) \}$
- 물가상승률: 한국은행 발표 현연도 물가상승률(2018년도: 1.70%)
- 지속가능발전율: 추세율 + 물가상승률
- 지속가능발전예산: 전년도 결산액에 지속가능발전율을 곱한 증감분을 반영한 예산

V. 분석 결과

1. 총괄(합계)

(단위: 원, %)

구분	2016 결산액	2017 결산액	추세율	물가 상승률	지속가능 발전율	2018 SDSB ¹⁾	2018 실예산	과부족	비고
내역	529,696,860	574,927,500	4.27	1.70	5.97 (≒6.0)	609,423,150	523,131,000	-86,292,150	

가. 해설

2017년 결산액 574,927,500원은 2016년보다 8.54% 증가한 수치다. 이 수치는 2016에서 2017로의 일방적인 증가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학교재정 상황의 왜곡현상을 최소화하고자 대상 연도수(2)만큼으로 나눈 값, 즉 산출비율의 1/2을 추세율로 본다. 그 결과 추세율은 4.27%가 되고 여기에 2018년 물가상승률 1.70%를 합하면 5.97%(≒ 6%), 지속가능발전율이 도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

1) SDSB(Sustainable Development School Budget): 지속가능발전 학교예산(재정)

연도(2018) 지속가능발전 예산은 전년도(2017) 결산액에 지속가능발전을 곱하여 나온 체증분을 더한 예산(609,423,150원)이 되는 것이다.

나. 시사점

2017년을 결산한 결과 2016년도보다 45,230,640원이 늘어났는데 공모사업 선정 지원금인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운영비** 10,000천원과 **학부모동아리활동 운영비** 2,000천원을 제외하면 33,230,640원이 늘어난 셈이다. 두 사업을 제외하고 두 해의 결산액을 다시 비교하면 33,230,640원(6.28%)이 증가했다. 이 수치를 2로 나눈 평균값에 2018년 물가상승률 1.70%를 합하면 4.84%인데, 2017년 결산액을 기준으로 체증액을 계산해 보면 27,228,803원이 된다. 2017년 결산액에 이른바 지속가능발전을 반영해 산출한 체증액을 합산하면, 바로 현연도(2018) 지속가능발전 학교예산(SDSB)이 되는 것이다.

2018년도 실예산이 SDSB보다 크면 학교의 재정 여건이 매우 좋은 상태를 의미하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주요 교육사업의 외주화(아웃소싱) 용이,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 개선 투자 확대, 학부모(수익자)부담의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2018년도 실예산이 SDSB보다 작으면 그만큼 학교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때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과정을 재검토하고, 외부 용역(아웃소싱)을 축소하고, 교육 환경이나 시설 투자 계획을 당분간 미루거나 외부 재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기존의 무상지원 사업 중 일부를 학부모(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하는 등 학교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2. 정책사업별

(단위: 원, %)

정책사업	2016 결산액	2017 결산액	추세율	물가 상승률	지속가능 발전율	2018 SDSB	2018 실예산	과부족	비고
기본적 교육활동	126,913,550	128,717,760	0.71	1.70	2.41	131,821,145	69,977,000	-61,844,145	
선택적 교육활동	65,380,740	70,862,220	4.19	1.70	5.89	75,037,422	97,011,000	21,973,578	
교육활동 지원	27,656,940	27,777,130	0.22	1.70	1.92	28,309,618	25,076,000	-3,233,618	
소계(교육)	219,951,230	227,357,110				235,168,185	192,064,000	-43,104,185	
인적자원운용	5,169,150	3,835,620	-12.90	1.70	-11.20	3,406,069	9,310,000	5,903,931	
교육격차해소	207,504,360	226,839,210	4.66	1.70	6.36	241,263,915	221,363,000	-19,900,915	
학교일반운영	96,427,360	116,895,560	10.61	1.70	12.31	131,288,910	99,409,000	-31,879,910	
소계(행정)	309,100,870	347,570,390				375,958,894	330,082,000	-45,876,894	

가. 해설

기본적 교육활동은 2017년 128,717,760원으로 2016년 126,913,550원보다 1,804,210원 증가했다. 이 중 현장체험활동(단위사업)의 경우 2017년 12,081,080원은 2016년 11,994,920원보다 86,160원 증가했지만, 거의 동일했다. 특히 2017학년도 본교는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10,000천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집행하였다.

선택적 교육활동은 2017년 70,862,220원으로 2016년 65,380,740원보다 5,481,480원 증가했다. 이 분야 핵심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돌봄교실 운영인데 본교는 2016학년도부터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 일반운영은 2017년 116,895,560원으로 2016년 96,427,360원보다 20,468,200원 증가했다. 일반운영비의 약60%를 차지하는 시설장비유지 분야는 시설관리원(1), 청소원(2), 급식도우미(2), 교통안전도우미(2) 등 교육 환경 유지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 기본 인건비, 전기·수도·전화·인터넷·우편·수수료 등 공공성 요금인 기본 인프라비, 그리고 약간의 시설 투자비로 구성된다.

나. 시사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돌봄교실 운영은 본교 단일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예산 비중도 가장 큰 사업이다. 2015년까지 직영으로 해 오다 2016년부터 위탁 전환하였으며 직영과 위탁의 재정 투자를 단순 비교해 보면 2015년~2017년 사업비 결산 결과가 각각 다음과 같았다.

(단위: 원)

연도별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운영 방식	예산액	결산액	비고
2015	직영	58,542,000	58,241,440	
2016	위탁(전주대)	65,316,000	59,524,520	
2017	위탁(우석대)	64,500,000	62,872,790	

3. 기본 인프라

(단위: 원, %)

Infra.	2016 결산액	2017 결산액	추세율	물가 상승률	지속가능 발전율	2018 SDSB	2018 실예산	과부족	비고
전기	20,124,950	20,991,290	2.15	1.70	3.85	21,799,874	20,400,000	-1,399,874	
수도	1,937,690	2,335,740	10.27	1.70	11.97	2,615,251	1,500,000	-1,115,251	
계	22,062,640	23,327,030				24,415,125	21,900,000	-2,515,125	

가. 해설

학교 인프라(Infrastructure) 중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과 예산 비율은 거의 9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BTL특성상 천정매입형 냉난방기 가동에 의한 고정 지출 비용이 해마다 점증하는 한편, 새로운 전력 수요 요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향후로도 전기요금은 본교 재정 운용에 가장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 시사점

교육청에서도 동·하계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냉난방 예산을 우선 확보토록 지도하고 있는 바, 추경을 통해 적정 예산을 확보함과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전기 수요 요인을 합리적으로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수도요금 총액은 전기요금 총액의 $\frac{1}{10}$ 에 불과하지만 그 증가 속도는 전기요금보다 오히려 5배나 빠르다. 그 만큼 상수도 사용량도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는 증거다. UN은 우리나라를 이미 물 부족 국가 그룹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전기부문과 마찬가지로 추경을 통해 적정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교(the whole school)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절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속가능발전 학교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VI. 종합 및 대책

1. 총평

2016~2017 재정 추세를 감안할 때 본교는 2018회계연도 예산과 결산 모두 장 부상 처음으로 6억을 돌파하여 **학교총예산 6억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교는 의무교육 정신에 입각하여 거의 100%에 달하는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있으며 임대형민자사업(BTL) 건축물로써 건물유지 분야는 민간 운영사와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협조하고 있다. 대략 총예산의 5분의 2는 학생 교육 활동에, 나머지 5분의 3은 학교 기본 운영에 투자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하급수로 불어나는 교육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본교 예산 형편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추경예산 편성

전년도 결산 분석 결과 본교의 예산 운용은 재원 배분의 총량 부족에 따른 재원 확보 한계의 문제이지, 예산 편성의 부실이나 구조의 취약성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다. 실례로 2018 세입예산 편성시 전년도 이월금을 13,000천원으로 편성했는데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14,778천원인 것으로 나타나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단적으로 증명하였다. 이에 따라 2018. 4월 초로 예정된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경에서는 전년도 이월금과 목적사업비 교부금 및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고, 새 학년도 초, 사업 내용이 불가피 변경되거나 추가된 기정 예산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 학교재정(SDSB)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최소한 범위로 편성하고자 한다.